

SK이노, 그린론 5억 달러 조달... 헝가리 2공장 증설 속도

헝가리 SKBM 채무 보증 의결
친환경 파이낸싱... 최대 7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인정

SK이노베이션이 헝가리 코마롬 제2공장 투자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그린론(Green Loan) 5억 달러를 차입하는 데 성공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헝가리 제2공장인 SK Battery Manufacturing Kft. (SKBM)에 대한 채무 보증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국내 기업 최초로 그린론을 통한 자금 조달에 성공한 바 있다. 이후 매년 친환경 파이낸싱으로 투자금을 확보해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이노베이션 헝가리 제2공장.

이번에 SKBM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조달한 그린론은 SK이노베이션이 채무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대규모 장기 자금을 양호한 금융 조건아래 진행했

으며 규모는 5억 달러, 기간은 최대 7년이다. 이 자금은 헝가리 제2공장 건설에 사용할 예정이다.

친환경 파이낸싱은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에 쓰이는 자금 조달 방법 중 하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종류에는 그린론·그린본드 등이 있다.

친환경 파이낸싱은 시장에서 사업의 친환경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인정받는 동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조달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그린론으로 약 8000억 원을 조달해 헝가리, 미국 등 해외 전기차 배터리 공장과 분리막 생산 공장 건설 투자금으로 활용했다.

또한 미국 현지 법인인 SK배터리아메리카는 지난해 미국 현지에서 그린론 4.5억 달러(한화 약 5000억 원)를 차입했고, 추가로 올해 1월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000억 원) 규모의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하며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전기

차 배터리 공장 투자자금을 확보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소재 사업 투자를 위해 그동안 친환경 파이낸싱으로 확보한 자금은 약 3조 2000억 원에 달한다.

김양섭 SK이노베이션 재무본부장은 "이번 수출입은행 그린론 조달은 SK이노베이션의 미래성장 동력인 배터리 사업이 친환경 사업으로 다시금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한 만큼 헝가리 제2공장에 대한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헝가리 코마롬에 완공했거나 건설 중인 제 1, 2공장에 이어 올해 1월 헝가리 이반차시에 올해 3분기 착공하는 연산 30GWh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제3공장 신설 투자를 발표할 바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네이버, SME 위한 교육 허브 페이지 오픈 (중소상공인)

네이버 쇼핑라이브, 독자적 경쟁력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비즈니스를 키워가는 SME(중소상공인)가 증가함에 따라, 네이버가 SME를 위한 온라인 교육 허브 페이지를 열어 SME 라이브커머스 역량 강화에 나선다.

지난해 7월 말 론칭한 네이버 쇼핑라이브는 10개월 만에 누적 거래액 2000억원을 돌파하고, 누적 시청횟수 3억 뷰, 콘텐츠 수는 6만건을 넘어섰다. 특히 주 1회 이상 쇼핑라이브를 진행하는 SME 판매자가 서비스 초창기인 지난해 8월 대비 1300% 이상 늘고, 5월 SM E 거래액 규모도 동기간 대비 2400%

이상 확대되며 쇼핑라이브를 활용하는 SME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SME의 높은 참여는 네이버 쇼핑라이브만의 독자적인 경쟁력이 되고 있다. SME의 5월 쇼핑라이브 거래액 비중은 전체의 47%를 차지할만큼 SME 라이브가 양적, 질적으로도 성장했으며, 누적 구매자 수도 300만 명을 기록하는 등 쇼핑라이브의 규모의 성장과 연결되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쇼핑라이브 전용 교육 허브 페이지'를 열고, SME를 위한 라이브커머스 교육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채운정 AI전문 기자 echo@

포스코인터, 中소와 해외 의료로봇 시장 진출

바이오트코리아와 해외 진출 협약
태국 등 6개국 대상 프로모션 진행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중소기업과 손잡고 해외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9일 의료로봇 분야 스타트업인 바이오트코리아와 의료로봇 분야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방역의 위상을 다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수출길 개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양사는 9일~11일 개최되는 '2021 BIOKOREA' 전시회 공동참가를 시작으로 '비대면 검체 채취 로봇'의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법인 및 지사가 위치한 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아랍에미리트·



비대면 검체 채취 로봇.

태국 등 6개국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년간의 해외 사업 노하우

를 바탕으로 현지 상황 분석 및 판매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하고, 바이오트코리아는 기술영업 및 사업수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트코리아가 개발한 '검체 채취 로봇'은 원격 로봇 제어 기술을 이용해 의료진이 진행하던 바이러스의 검체 채취 과정을 비대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의사 1명당 최대 9대의 '비대면 검체 채취 로봇'을 통제할 수 있어 의료진 피로와 2차 감염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비대면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의료 현장을 비롯해 공항과 격오지 등 비대면 검체 채취가 필요한 현장을 중심으로 점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승운 기자 ysw@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한화솔루션 여수공장.

한화솔루션, 소재 국산화로 기후변화 대응

총 68억 투입

한화솔루션이 2025년까지 정부기관 및 대학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소재의 국산화에 나선다.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최근 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산업용 가스 등에서 이산화탄소 등 원하는 가스 분자를 선택적으로 흡착해 분리할 수 있는 탄소분자체(CMS) 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고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총 68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2021년도 탄소산업 기반 조성 사업'의 하나로 한화솔루션

이 주관하고 한국탄소진흥원, 충남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예곡융합첨유연구원 등이 참여해 2025년까지 시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전량 일본에서 수입 중인 고효율 탄소분자체는 검은색의 팻릿 모양 소재로 철강 등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용 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착·분리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CCS)하는 기술의 효율을 대폭 높일 수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정책에 필요한 핵심 소재로 활용될 전망이다.

/김수지 기자

포스코케미칼, 소재 기술 경쟁력 선배

'인터배터리 2021' 참가

포스코케미칼이 배터리 성능을 결정하는 소재 기술 경쟁력을 선보인다.

포스코케미칼은 9일 오는 1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인터배터리 2021'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배터리 소재인 양·음극재, 원료에서 소재 생산에 이르는 밸류체인, 차세대 R&D 로드맵, 그룹 친환경 모빌리티 통합 브랜드인 e Autopos 등을 소개한다.

포스코케미칼은 전시를 통해 소재가 배터리의 용량, 수명, 충전속도 등을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한 고용량 하이니켈 NCM·NCMA 양극재, 배터리의 수명과 충전속도 개선을 돕는 천연흑연·인조흑연·저팽창 음극재 등을 소개하고 차별화된 기술력을 강조한

다.

배터리는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을 오가며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로 작동한다. 배터리 성능을 위한 기술과 차지하는 비중 면에서 소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극재는 배터리에 리튬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며 용량과 출력을 결정하는 에너지원이다.

음극재는 배터리가 충전될 때 양극에서 나온 리튬이온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 수명과 충전속도를 결정 짓는다. 배터리 제조원가에서도 양극재가 40%, 음극재가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포스코케미칼은 차세대 배터리 양·음극재 개발 현황도 R&D 로드맵으로 공개한다. 포스코케미칼은 양극재에서는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한 니켈 함량 증대 기술, Co-Free 양극재 등을 개발하고 있다.

/김수지 기자

LG전자

고객가치 창출사례에 혁신상

LG전자가 고객 가치를 창출한 혁신 활동을 공유했다.

LG전자는 최근 상품기획, 연구개발, 영업, 서비스, 디자인, 생산 등 사업 전반의 밸류 체인에서 고객가치를 높인 우수 사례를 선정해 '고객경험 혁신상(The CX Innovation Awards)'을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상에는 고객 니즈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패턴 포인트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우수 사례를 사내에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객감동에 도전하는 조직문화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상에는 11개 우수 사례가 선정됐으며, 분기에 한차례씩 선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에는 올인원 타워와 점자 가이드, 전장 분야 시뮬레이션 공간 구축 등이 상을 받게 됐다.

/김재용 기자 juk@